당뇨병이 있는 근로자에서 우울증 발병율이 높다

콘텐츠 출처 NIOSH; Depression More Common in Workers with Diabetes

번역 김효진 대외홍보팀 차장

당뇨병은 미국에서 3,400만 명 이상의 성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근로자는 우울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근로자 중 젊은 성인과 여성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연구 저자이자 NIOSH 전염병학자인 Harpriya Kaur 박사는 "이 연구는 생산 가능 연령의 사람들에게 당뇨병이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정 요인, 특히 연령, 성별 및 공존하는 만성 질환이 당뇨병 근로자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 참가자를 식별하기 위해 50개 주 전체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미국 3개 지역의 2014–2018 행동 위험 요인 감시 시스템(BRFSS)의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분석을 위해 설문 조사 당시 고용 중이고 당뇨병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총 84,659명)를 포함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당뇨병이 있는 근로자의 우울증 유병률이 당뇨병이 없는 근로자보다 30% 더 높았으며 설문 응답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당뇨병이 있는 젊은 성인 근로자는 우울증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30%가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 65세 이상 조사 대상 근로자의 11%가 약간 넘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젊은 성인 근로자의 경우,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보고할 가능성이 거의 3배나 높았습니다.

연구자들이 성별로 데이터를 보았을 때 모든 연령대의 당뇨병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우울증을 스스로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Kaur는 "이 연구의 장점은 인구 통계 및 신체 건강 상태를 포함한 기타 특성과 연령 그룹에 따라 근로자의 당뇨병과 우울증 사이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대규모 인구 기반 샘플입니다"라며 "어떤 그룹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면 맞춤형 교육 메시지 및 직장의 건강 증진 리소스와 같은 예방 조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표1〉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depression among those with diabetes, among U.S. woekers by state or territory,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2014–2018

	U.S. States or territories	Depression(%)	Diabetes(%)	Depression among U.S. workers with diabetes(%)
1	Alabama	15.6	7.8	20.7
2	Alaska	14.4	5.2	21.5
3	Arizona	14.1	6.2	20.4
4	Arkansas	17.2	7.0	19.5
5	California	11.4	6.8	13.9
6	Colorado	14.8	4.3	19.0
7	Connecticut	13.6	5.7	18.9
8	Delaware	14.2	6.6	17.6
9	District of Columbia	14.1	4.1	18.0
10	Florida	11.0	6.0	15.2

오역 및 개선사항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팀 김효진 차장(bearkhj@kiha21.or.kr)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